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4

하나님과의 화목

(에베소서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선포에 대해 말한 후에
의도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2:18)라고 덧붙입니다. 앞에서
그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
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또한 바로 그런 방법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저주를 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복
음이 그 분께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이런 일
을 행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령 안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복음이 선포될지라도,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과 세
상적인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
의 삶에 관해서 개나 돼지들보다도 더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방 열국들이, 너희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화롭게 할지어다”
(사 24:15)

위선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 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께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쉽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지니기를 고집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변덕을 부리며, 일심(一心)으로 남아 있는 일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들고 그 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20에서 말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실 때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야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적 능력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촉구하면서 그분께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께로 갈 방법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 갈 방법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로마서 8:15에서 말씀되고 있으며, 우리는 갈라디아서 4:6을 통해서도 이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버림 받은 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양자의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직 연약함만이 존재하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큰 경솔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내적으로 교화시켜 주시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알려 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 중의 아무도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벧전 1:2).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바쳐 지셨다고 말하는데(히 9:14),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값을 치르기 위해 바치신 희생은, 만약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공허한 것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서 언급된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던 자들 모두가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으며, 그와 꼭 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더욱 더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덧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있던 자들’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유대인들, 즉 앞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율법의 수호자들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시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마음의 공포와 고뇌만을 안겨 주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 3장(9절과 23절)과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7절) 유대인들, 즉, 그들을

철저히 저주하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낮추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에 덧붙여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른 거룩한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와 비슷한 모든 왕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구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약 율법이 복음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율법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려눕히고, 그들 위에 번개를 내리고, 하나님의 엄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 주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가르침에 참여자가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이중의 의무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삭(滿朔)이 되지 못해 난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시켜 주시고, 또한 당신이 미리 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의 무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열국 들어, 너희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화롭게 할지어다”(사 24:15)라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로써 성령께서는, 이미 말씀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듯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가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곳으로부터 나와 한데 연합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하나님 찬양의 멜로디가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 「존 칼빈 에베소서 설교 상」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5) 322~326

